

周易思想의 實體意識에 對하여

특히 安浩相氏의 批判에 答함(一)

跛聾生

去月二十四日付의 本聞 所載拙文『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에 對한 安浩相氏의 批判文은 今月六日付로 三回具하여 本聞에 發表되었는데 나는 일즉氏와 而識할 機會를 엿지 못한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거니와 이제 이 機會에 있어서 비록 紙面上으로나마 서로 敬□하고 眞摯한 態度로 相對하게 된것을 특히 김버한다. 그리고 周易에 숨□된 思想이 極히 深遠하고 도 □□한뿐만 아니라 그 體制와 論議로 말할지라도 從來의 古□中에서는

그 와같이 具備하고 簡명한 著作을 發見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거니와 그러나 朱子以後의 儒學者의 學問은 한갓 章句를 記誦함으로 能事를 삼았을 뿐이오. 그 原理를 究明하는것은 異端이라하여 先儒들의 著作과 理論을 無條件으로 信賴함을 強要해왔으므로 저들은 先儒들이 일즉 發明치 못한 것을 새로 簡명한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先儒의 發見을 擴充하고 保守함도 成就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宋儒들은 周易을 萬學의 祖宗이오. 淵源이라하여 周易의 高逸廣大한 學的 地位를 強調함과 함께 그 體制와 理論組織이 아즉 未成品인것을 痛感하여 朱子는 周易下經과 繫辭下傳의 『亂章之地』를 絶叫하였다. 그러나 朱子역시 經傳의 原文을 註釋함에 充實함만 努力하였고, 저의 創見을 提示함과 같은 일은 거이 없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易理에 對한 發明은

勿 論이오. 그 體制로 말할지라도 도로히 漢代以前이 面目을 維持하기어렵게 되었었다. 어찌 그러니 하면 그 後의 周易에 對한 言論은 陰陽家의 術數說이 아니면 卜策家의 占巫論으로써 周易의 原理를 歪曲하고 그 本義를 抹殺해 버렸음으로써이다. 例컨대 卽□節 및 廓漢等의 周易大衍數論은 그 中の □□한 者이다. 그리 하여 저들은 周易의 在來思想이 唯物論인것을 理解치 못하고 그 까닭에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에 對해서는 一言半辭도 容□치 못하였다. 그러나 幸히 程子朱子 等이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을 唯物論的으로 註

解함에 依하여 周易의 在來思想이 얼마만큼 簡明된것은 特히 注意할만한일 인줄로 믿는다. 그리고 이제 나는 安浩相氏와 함께 이問題에對하여 거듭研究 할 必要가 생긴 것은 자못 興味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周易을 研究 함에 當하여

먼 밝키지 안흐면 안될 것은 그 發生的 史實로 보거나 그 內容으로 보아서 그 思想이 唯物的인가 아닌가하는 問題이다. 그리고 내의 보는 바로해서 는 文王易은 唯物的이오. 孔子易은 非唯物的이라고 생각된다. 이박게 □山易 과 歸藏易은 信한바없으니, 그들의 世界觀이 唯物論인지아닌지 이는 알 수 없으나 八卦의 運行하는 起點을 前者는 首良하고 後者는 首坤하고 文王易은 首乾하였는데 이 八卦運行의 起點이 서로 갖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는 그의 世界가 각기 담은 것을 立論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文王易과 孔子易과의 다른 것은 郎光十一月號 所載拙文『周易의 正中原理와 政治思想』의 結論에서 略述한바잇거니와 周易思想이 어찌하여 唯物論이나하면 그것은 무엇보담 도 周易의 發生한 史實이 잘 立證한다. 卽 伏羲時代에 잇어서 所하여 天象을 觀하고 俯하여 地理를 察하여 그를

圖 로써 表示한것이 周易의 起源이오. 또 河圖와 洛□에 잇어서 五行으로 宇宙萬象을 公式한것이 八卦公式의 前提인바 伏羲時代에 잇어서 所謂仰觀俯 察한 對象이 天地萬物인것은 繁說할 必要도 없고, 또 河圖와 洛□의 五行이 水火木金土의 五種物인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周易은 觀察의 對象을 物에 두고 또 그 組織의 資料를 物에서 求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方法 에 잇어서도 物의 容態卽陰陽의 秩序로써 八卦의 公式을 作하였다. 그리 하여 그 學의 名稱까지 易이라 하였다. 易字의 義와 易理에 대해서는 郎光十一月號前示拙文에서 論한때이다.

그런데 五行의 字義에는 五種物이라는 意味와 五次라는 意味가 包含된것 이어니와 그 까닭에 陰陽의 神秘性を 말하는者는 五行의 神秘性도 □強附會 하게 되었다. 그리 하여 五行說이 出來하였는데 周易의

五行은 決코 그와 같이 神秘性으로 包圍된 奇怪한 觀念이 아니다. 그것은 宇宙現象의 關係는 언제나 水火木金土의 五種物로 形成되고 또 그리 하여 그들의 變化로 말미암아 現象이 變化함을 論術하였으니 말하자면 五行은 宇宙의 現象을 做出하는 五種의 元素的 物質인 것이다. 그리고 五行의 發生學 的 研究에 잇어서는 從來學者間에 議論이 紛紛하였지마는 周易에서는 『天一生水』라 하여 水로써 五行의 首位를 삼았다. 最近『天一生火』說을 主張 한 學者가 잇었다는 말을 某友에게서 드렸으나, 그것은 星霧說과 같은 意識 이 아니오. □學上의 病理論에 잇어서 從來의 水先論을 否認하고 火先論을

提唱한것이라하는데 이제 그 理論의 要領과 根據를 求해볼 수없는 것은 遺憾이다. 그리고 五行의 干支說과 方位論은 周易思想과 何等의 聯關이 없는

迷信思想이어나와 周易에서 八卦의 方位를 設定한것은 事物의 變化하는 段階를 究明하기 爲한것이오. 易理의 方位的 神秘性을 組織하기 爲한것이아니다. 그러므로 伏羲八卦와 夾王八卦가 서로 方位的 順序는 갖지 안치마는 易理는 다른 것을 말한者없다. 그런데 五行과 八卦에 關한 解說은 本題의 範圍가 아님으로 다른 機會에 譯述하겠다. 그리고 安浩相氏의 論旨가 나와 다른 것은 周易思想의 形體意識에 對한 見解의 差異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나는 먼저 周易思想의 形體意識을 克明치 아니 할 수 없다.